

공간정보 인프라 수출 100억 시대 개막

LX, 투르크메니스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수주 무상원조로 시작한 기술지원이 100억대 사업까지 확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기간 중 '투르크메니스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주하며 한국형 공간정보 인프라 사업 100억 수출시대 개막을 알렸다.

대통령 순방에 참가한 LX는 16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LX 최창학 사장, 김택진 본부장, 투르크메니스탄 농업환경보호부 바이랍두

르디예프(Bayramurdyev)장관, 알라불(Altanul)차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까지 100억 원 규모로 추진 될 '투르크메니스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투르크메니스탄 전국의 토지등록과 관리를 위한 토지관리시스템 구축, GNSS장비 등 각종 H/W와 S/W 제공, 중장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지원 등이다.

또한, 사업은 LX가 2011년부터 수행했던 코이카(KOICA) 공적개발원조의 후속사업으로 무상원조사업으로 시작해 후속 확장사업까지 이어진 성공적인 공간정보산업의 국외진출 케이스로 평가 받고 있다.

LX는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2006년 '모로코 토지등록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53개국, 약 420억 원의 사업성과를 기록하며 국내 공간정보 인프라의 세계화에 일조하고 있다.

최창학 사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공간정보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투르크메니스탄 토지관리와 공간정보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19일 이번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국가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의 국립토지자원과화설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토지관리 및 역량강화 분야 협력을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역량강화를 기증하는 등 국내 공간정보 기술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100년 은행으로 성장 위한 다짐

전북은행, 윤리경영 선포식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2일 본점 중회의실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갖고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선포식은 임용택 은행장과 임원, 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남권 대표 은행의 위상을 확립하고, 향후 100년 은행으로의 성장을 위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다짐과 공감대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건전한 화식문화 정착과 임직원 간 금품 및 선물 수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불건전 영업과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직무수행 및 개인생활에 있어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내용으로 윤리경영을 통하여 금융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전북은행의 의지가 담겨 있다.



임용택 은행장은 "정직과 신뢰,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경영을 통해 금융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며, "전북은행 임직원 모두는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명확히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신규직원 40여명 채용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2일 열정과 혁신으로 농촌·농협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유능한 지역 일꾼 40여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4월 26일까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 및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며, 5월 26일에 인·적성 및 직무 능력 검사, 6월 초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채용에 따른 응시자격은 채용공고일 전일(2019년 4월 21일) 기준으로 본인, 부, 모 중 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채용단위별 응시지역 내이면 가능하며, 그 외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다.

다만, 일반관리직(영농지도) 지원자는 농과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농협은 지역에 연고를 둔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 확대 및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삼양그룹과 휴비스가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를 휴비스 전주1공장 운동장에서 지난 20일 성황리에 마쳤다.

'푸른 세상에 우리가 만드는 미래 그려요'

삼양그룹·휴비스,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 성료 전국의 초·중등학생으로 참석 대상 확대... 전국 단위 환경 축제로 발돋움

삼양그룹(회장 김윤)과 휴비스(대표 신유동)는 '제22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를 전주시 휴비스 전주1공장 운동장에서 지난 20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는 삼양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사, 삼양화성과 섬유소재 전문 기업 휴비스가 환경보전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대표적인 환경 축제다.

1998년 시작된 이래 초, 중등학생과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매년 참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부터는 참석 대상을 전국의 초, 중등학생으로 확대해 전국 단

위 축제로 발돋움했다.

제22회 행사에서는 '푸른 세상, 우리가 만드는 미래, 자연 환경 속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제로 초등학교생은 그림그리기, 중학교생은 글짓기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참여 학생과 가족들은 명랑운동회를 비롯해 소방 장비 체험, 에코백 만들기, LED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환경 퀴즈 대회 등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겼다.

특히, 에코백 및 LED화분 만들기는 환경의 의미를 생각하며 직접 만든 소품을 가져갈 수 있어 참여 학생과 가족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환경 보호는 일상 생활 속에서 직접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과 그림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장관상), 금상, 은상 등 총 526명을 선발해 상장과 장학금, 문화상품권 등을 수여한다.

입상자는 5월 3일부터 삼양홀딩스, 삼양사, 삼양화성, 휴비스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시상식은 전주상공회의소에서 5월 16일 열린다.

/김영태 기자

전개공, 임대주택 입주민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22일 공사사 관리중인 국민임대주택(전주 평화 500세대, 익산송학 700세대)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194세대에 사랑의 쌀 20kg씩이 전달됐으며, 김천환 사장과 직원들로 구성된 '한마음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 세대에 사랑의 쌀을 직접 방문·전달하며 나눔 활동을 가졌다.

한편,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된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는 그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총 1,338세대에 6,500만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이 전달됐다.

/김영태 기자

한농공 전북, 안전보건공단과 안전강화 상생협력식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와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준원)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지역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상생 협력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강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관내 200여개의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국내 최고의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전북지역의 건설현장 사

망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협력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건설안전 가치 공유 및 관련 분야 최신기술·지식 습득 지원 ▲공사현장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재해예방 인프라 확산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전북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강환 본부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작업 환경 개선 및 시설물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전북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다문화가정 항공권 전달·캠프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2일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도내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을 초청 모국방문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했다.

모국방문 대상자는 베트남 7가정·필리핀 3가정·일본 3가정·캄보디아 1가정·중국 2가정 등 총 16가정 67명이 선정됐으며, 전달식 후에는 농업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다문화가족캠프 시간도 가졌다.

유재도 본부장은 "농업·농촌을 지켜며 농촌 활력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국방문 지원이 삶에 새로운 힘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지원을 위하여 기초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 교육,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다문화 부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농협재단과 함께 2007년부터 13년째 도내 198가정 814명의 다문화가정에게 모국방문 항공권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꾸나가야 합니다